

완주

# 함께 구상하고, 만들고, 배우고, 놀이하는 공간

## 복합문화지구 '누에'

폐산업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창조·생활문화·교육공간 등 문화생활 확대  
예술인·셰프 지원 '누에 살롱' '청년키움식당'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

## 삼례문화예술촌

일제강점기 양곡창고 리모델링 문화콘텐츠로  
역사와 현대 어우르는 문화예술 중심  
모모미술관·카페프레·북아트센터 등 7곳 운영  
오래된 공간·시간 흔적 다음세대에 고스란히



삼례문화예술촌 입구 /전북일보 윤홍현 기자



삼례문화예술촌 내부전경 <완주군 제공>

전북 완주군에는 비어있던 건물을 활용해 문화, 예술 소통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창고를 리모델링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 곳들이 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집에만 있기 보다는 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즐기고 주말, 가족·연인 등과 함께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 ◇복합문화지구 '누에'

(재)완주문화재단 복합문화지구 누에(nu-e)는 지난 1987년부터 사용해 오던 '호남 잠종장'이 부안으로 이전한 뒤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공모사업에 선정, 다음해에 비어있던 건물을 활용해 문화·예술 소통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폐산업시설로 그 쓰임을 잃은 공장을 문화, 예술 소통 공간으로 바꾸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로컬 디자인과 창조공간, 생활문화공간, 교육공간으로 구성해 지역의 문화 생활 향유 기회를 확대했다.

현재 문화예술교육 기반과 전시 기반 등에서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하며 공예공방을 활용한 개방형 내일공방, 다시 상상유터, 꿈튀움, 융복합문화예술교육 등과 누에 아트홀을 기반으로 기획 및 대관 전시 등의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총 46개의 파일럿 프로그램에 이어 2017년에는 9개 분야 13개 사업, 2018년 7개 분야 11개 사업, 지난해에는 5개 분야 13개 사업을 운영하면서 입소문이 돌아 누에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제 단체 체험을 중심으로 연간 5000여명이 유료 체험에 참여했으며, 지난 2018년에 개관한 전시장 아트홀에는 6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또 20여개 기관단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갔다.

특히 복합문화지구 누에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옛 공사를 활용한 팝업스테이스 '누에 살롱'으로 문화예술인과 셰프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유경제형 공간이다.

또한 누에 아트홀에는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인 '청년키움식당'을 운영해, 창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의 또 다른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완주군은 171 수탁(2018~2020년)이 초창기 기반 수립 기간이었다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2기 수탁으로 보다 적극적인 비전과 전략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중장년층 이상을 겨냥한 창의적인 노후, 아동(청소년)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다각화,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과 기자재를 전문강사의 도움을 받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삼례문화예술촌

삼례문화예술촌은 일제강점기 만경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임시 보관하던 7동의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확충, 지난 2013년에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이다.

삼례역과 만경강을 이용해 쌀을 수탈당한 우리 선조들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지만 선조들의 아픈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승해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삼례 지역의 도시 재생과 지역 유산도 보존하고 있다.



누에 미술관 <완주군 제공>

지역과 함께 살아 온 오래된 건물의 가치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10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창고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새로움을 쫓는 현대인들에게 오래되고 낡고 허름한 건물은 가치가 없다는 고정 관념을 없애고 옛 것도 훌륭한 문화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성공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다.

또한 일제강점기 양곡 수탈을 위해 건립된 창고를 철거하지 않고 재활용함으로써 선조들이 겪었을 아픈 역사와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는 공간 조성이라는 두 가지의 흔적을 조화롭게 살렸다.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담아 각계각층이 즐길 수 있는 기획전시와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과거와 현재가 만나 문화로 미래를 여는 지역의 새로운 문화가치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삼례문화예술촌에는 모모미술관(기획전시, 작가초대전)을 비롯해 카페프레(카페 운영), 책광북아트센터(책만들기 체험, 레터-프레스 전시), 시어터애니(주말상설공연 및 기획 공연, 영화 상영), 김상림목공소(목공예 작품 전시, 목수학교 운영), 어울마당(각종 행사 및 페스티벌 운영), 커뮤니티 문치(세미나 및 전시 공간 운영) 등 총 7곳이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다.

완주군은 양곡창고 7동을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으로 나누어 각계각층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곳, 지역 학생과 주민들이 교감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발굴로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100년 가까이 한자리를 지키며 그 지역과 함께 살아온 오래된 건물의 가치에 주목하고 그 공간과 시간의 흔적을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물려주어 옛 선조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경험을 만들자. /전북일보=김선찬 기자



복합문화지구 누에에서 열리는 어린이도예체험교실 /전북일보 윤홍현 기자

광주일보 江原日報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每日新聞 부산일보 釜山日報 제주新보 新 팔도유람은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도 "각종 연회 행사"는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